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부장)

제 I 장

개
발
협
력
이
슈

제 II 장

제 III 장

목 차

I. 들어가며

II.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특징

III.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사례

1. 글로벌시민교육의 플랫폼 : KCOC 개발교육
2. 세계시민교육과 정책 애드보커시 연계: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3. 다양한 참여형 글로벌시민교육 :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4. 전인적인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 한국YMCA 라온아띠
5. 나눔교육을 통한 SDG 12 달성에 기여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6.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 4 달성에 기여 : 호이 세계시민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본 논문은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NGO들은 1990년대부터 글로벌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해 왔다. 교육을 통해 지구촌 이슈를 이해하고, 그 이슈에 대해 가치와 태도를 정립하며, 토론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사고를 넘어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 글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글로벌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뒤 그 중 6개 단체의 사례를 통해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의 형태 및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비전, 기아대책, 한국YMCA, 아름다운가게, 호이 등 기관들의 글로벌시민교육의 목적, 방향, 내용,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핵심어 : 한국 개발NGO, 글로벌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I. 들어가며

우리는 날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문제들을 접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분쟁, 무역, 빈곤, 불평등, 인권 등의 이슈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도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 국제연합(United Nation, 이하 UN) 회원국들은 2000년부터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통해 글로벌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해 힘을 모았고 기아, 교육, 성평등 등 몇 가지 문제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을 다룬 점과 목표달성 과정 중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타격,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미온적인 노력 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참여와 논의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두 번째 전 세계적인 목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목표가 완성되는 시간만도 삼 여년.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기업,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탄생하게 되었다.

17개의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SDGs는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발전 목표(SDG 1~6), 포용적인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경제성장 관련 목표(SDG 8~11), 그리고 극심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표(SDG 7, 12~15),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목표(SDG16~17)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각 나라와 지역 간 이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전 지구적으로 연대하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연계된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우리의 정체성을 국가단위에서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으로 확대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발족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당면해있으며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글로벌시민교육은 SDG 4인 교육목표(‘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의 세부목표(target) 7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¹⁾’로 글로벌시민교육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방법이 담겨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이 SDGs에 포함되기까지 시민사회는 많은 역할을 해왔다. 브릿지47네트워크(Bridge47 Network)와 같은 글로벌시민교육 연대체를 통해 교육이 SDGs 의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UN과 각국 정부에 제안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글로벌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현실에 대해 꾸준히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글로벌시민교육은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성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이 SDGs가 지향하는 변혁의 시간이길 원한다면 글로벌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지제고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글로벌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던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시민운동 차원의 노력을 되짚어보고 그 교훈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조사내용을 분석하였고, 홈페이지 및 단체들의 내·외부 문건을 통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활동들의 특징 및 교훈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1) SDG 4.7 내용은 다음과 같다: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4>) (접속일: 2017.09.18.).

II.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특징

한국NGO가 지구촌 빈곤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시기는 1994년 르완다에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기아대책이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1990년대로 본다. 이후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쟁, 남아시아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등 재난과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전개하면서 NGO들은 활동의 전문성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지역에서의 NGO 활동은 언론에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개발 NGO 활동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은 바로 이 시기에 태동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M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의제가 전 지구적인 의제로써 자리매김을 하였고, 국내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통해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개입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MDGs, ODA, NGO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자 NGO들은 시민들의 인지제고 차원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NGO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빈곤, 교육, 환경과 같은 이슈에 대한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가치 및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태주, 2009).

다음 표는 각 기관별 글로벌시민교육의 현황을 보여준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의 특징들을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2016년도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시행 현황

번호	단체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작 연도	기타
1	고앤두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초중고 출강	2013	
			강사양성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3일 교육)	2013	
2	국경없는 교육가회	국제개발협력교육	교원	초중고 교원연수		
			대학생	캠프	2010, 2012	
3	굿네이버스	나눔교육	청소년	One Heart!(초등), 'ME TO WE'(중등), 청소년글로벌 리더십캠프(고등)	2008	교재개발 전국시행
4	굿피플	미래교육	청소년	청소년 서포터즈		
5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유아용	어린이집/유치원 출강	2003	교재개발 전국시행

번호	단체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작 연도	기타
			아동 청소년	초중고 출강 청소년 서포터즈		
6	더나은세상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동아리 운영(고등)		교재개발
7	메디피스	개발교육	청소년 성인	강연 및 멘토링	2010	
8	서비스 포피스재단	청소년글로벌시민 학교	청소년	글로벌이슈 학습 및 자원봉사활동	2009	
9	세이브 더칠드런	권리교육	아동 청소년	초중고 출강		전국시행
10	아름다운 가게	나눔교육	아동 청소년	맞춤형 출강	2011	전국시행
			성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11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유아,아동 청소년	유치원, 초중고 출강 청소년 서포터즈	2007	교재개발 전국시행
			교원	교원직무연수		
12	월드투게더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초중고 출강	2007	교재개발
			성인	강사양성		
13	위드	나눔교육	아동,청소년, 성인	드림백 캠페인	2012	
14	지구촌 나눔운동	지구시민교육	교사	교원 연수	2000	교재개발
			대학생	캠프		
15	코피온	지구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초중고 출강, 캠프	2008	교재개발
			학부모 성인	학부모, 대학생 및 일반인대상 출강		
			성인	강사양성		
16	팀앤티	Youth Goba l Action	청소년	초중고 출강 청소년 서포터즈	2015	교재개발
		국제개발협력교육	교원	교원직무연수		
17	프렌드 아시아	글로벌리더교육	유아 청소년	유아대상 및 중고 출강		
18	한국국제 봉사기구	세계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클린테이블 캠페인 (지구촌 식량문제)	2013	
19	한국 카리타스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성인	중고 출강	2010 년이후	교재개발
20	한국JTS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청소년워크샵		

번호	단체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작연도	기타
21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대학생	중고 출강 독서토론, 영화시청, 기관탐방,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2004	교재개발
22	한국YMCA 전국연맹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동아리, 캠프	2007	교재개발
23	호이	세계시민교육	교사 청소년	교원연수, 동아리 청소년 서포터즈	2008	교재개발
24	KCOC	국제개발협력교육	초중고 교사 봉사단원	초중고출강, 동아리 교원연수, 강사양성	2009	교재개발 일부지방포함

자료: KOICA ODA교육원-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016), KoFID(2015), 각 단체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은 지구촌나눔운동(2000)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본격화되었다. 기아대책(2003), 한마음한몸운동본부(2004), 한국 YMCA(2007), 월드비전(2007), 월드투게더(2007), 굿네이버스(2008), 코피온(2008), 서비스포피스(2009) 등이 2000년대에 글로벌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참여 단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 회원단체 130개 중, 22단체(16.9%)가 글로벌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의 명칭은 기관별로 다양하다. 세계시민교육(25%, 6개 단체)과 지구시민교육(20.8%, 5개 단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나눔교육과 국제개발협력교육/개발교육이 각각 12.5%(3개 단체)로 그 뒤를 이어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의 형태는 ‘학교과전교육(54.2%, 13개 단체),’ ‘세계시민캠프(33.3%, 8개 단체),’ ‘교원연수(29.2%, 7개 단체),’ ‘청소년/청년 서포터즈 조직(25%, 6개 단체)’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이나 워크숍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별로는 중·고등학생(62.5%, 15개 단체)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45.8%, 11개 단체)과 유아(29.2%, 7개 단체)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초·중·고 모두 지원하는 기관은 45.8%(11개 단체)였으며, 유아·초·중·고를 포함하는 단체는 25%(6개 단체)였다.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교재를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는 KCOC를 포함하여 모두 13개

단체이며 전체의 54.2%를 차지한다. 교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형 규모 NGO의 경우 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살펴본 한국NGO 글로벌시민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관들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교육형태로는 학교파견교육이나 교원연수 등 학교와 협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대상별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다. 절반 이상의 단체들은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몇몇 단체의 사례를 통해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이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III.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사례

본 장에서는 한국NGO 글로벌시민교육의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사례는 제 2장의 조사를 기반으로 본 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 중 교육의 형태는 일반적이나 교육의 지향점에 차별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각 기관마다 글로벌시민교육의 명칭이 다르므로 기관 사례 소개 시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1. 글로벌시민교육의 플랫폼 : KCOC 개발교육

KCOC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글로벌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제개발협력교육(이하 개발교육)을 실시한다.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글로벌시민교육 활동이 시작되면서 교육 콘텐츠와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KCOC는 KCOC회원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개발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다음 표는 교육기반구축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표 2〉 KCOC 개발교육의 교육기반구축 활동

사업명	내용	대상
커리큘럼/컨텐츠 개발	학생용 워크북 및 교사용 교안 개발	초중고 학생 및 교사
	국제개발협력 개론서 개발	대학생 이상 성인
강사양성훈련 (기초)	개발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훈련(2009~2015) (개발 이슈강의 및 교수법 제공)	개발 NGO 실무자, 일반 관심자
강사양성훈련 (기본)	개발교육의 실제 수업을 위한 교육 tool 습득, 실습 훈련	해외봉사단원, 귀국단원, 개발NGO실무자
교원직무연수	공교육 내 개발교육 시행을 위한 연수 (이슈강의 및 자료 활용법 제공)	초중고 교원

출처: 신재은 (2014)

첫 번째 개발교육 커리큘럼 및 교보재는 다양성, 빈곤, 환경 등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관련 지식을 얻고 실천해 보는 참여형 학습형태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교수업시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활동에는 NGO뿐만 아니라 교사 그룹이 연구진, 집필진, 자문그룹으로 소속되어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총 4종 8권의 개발교육 교재가 마련되었다.

〈표 3〉 KCOC 개발교육 발간 자료

교재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10, 2016(개정판) · 대상 : 대학생 이상 · 내용 : 국제개발 개념 및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09 · 대상 : NGO 및 교사 · 내용 : 세계화, 상호연계성, 다양한문화, 이슈 등 총 4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12 · 대상 :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총 2종) · 내용 : 다양성, 상호연계성, 인권, 빈곤, 환경, 평화 각 5차시 총 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13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 3종) · 내용 : 다양성, 상호연계성, 인권, 빈곤, 환경 각 4차시 총 12차시

출처: 신재은 (2014)

두 번째 강사양성 과정은 기초와 기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초과정은 일반 시민들이나 NGO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과정은 귀국 해외봉사단원과 NGO 실무자가 개발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실습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교육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지식,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교육 방법론,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과 같은 교수법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부터 총 27회 687명이 강사양성 과정에 참여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평택, 대전, 익산,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경우에 따라 KCOC 회원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세 번째 교사들을 위한 자율연수 및 직무연수과정도 마련하였다. 교원연수의 경우 위의 강사 양성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양성 과정의 내용 중 교수법을 제외하고 국제 개발협력 기본 지식 및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교육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연수의 경우 2010년부터 총

8회, 271명이 수료하였다.

KCOC는 2009년부터 3년간 개발하고 양성한 강사 및 교육 커리큘럼/교보재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면서 개발교육 확산 활동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KCOC 개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업명	내용	대상
초중고 수업지원 (강사파견)	공교육에 강사파견을 통해 개발교육 수업을 지원(동아리,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 등 활용)	수도권 초중고교
콘텐츠 개발	개발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교육 강사를 위한 동영상 강의 제작	일반 대중 및 강사
아이디어 공모전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일반 대중

출처: 신재은 (2014)

먼저 초중고 개발교육 수업지원은 개발교육 강사파견을 요청한 학교와 강사로 양성된 귀국봉사단을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사는 개발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학교 수업 또는 동아리 모임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KCOC회원단체들과도 협력하여 함께 수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단체들이 개발교육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단체들과의 협력은 주로 개발된 교재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였고, 일부 지방 소재 단체의 경우 강사와 커리큘럼 및 교재를 모두 지원하면서 그 지역과 NGO에 개발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도 하였다. 대상학교는 신청학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KCOC교원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소속 학교가 우선된다. 학교당 1회(최대 2회)를 지원하며 선발된 학교는 이 기간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교와 학생 수는 총 89개 학교 3,715명이다.

개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으로 ‘지구인 테스트’라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거나 세계시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일부 수상한 작품은 교재 개발 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개발한 교보재, 콘텐츠 및 시범강의 동영상은 KCOC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여 개발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료 조회건수 건당 최소 894건~최대 4,746건)²⁾. 또한 개발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정보(단체명, 교육 종류 및 내용, 담당자

2) KCOC홈페이지 2017.9.15. 검색

연락처)를 브로셔로 제작, 수도권 5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개발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³⁾

KCOC는 지난 9년의 경험을 통해 공교육용 개발교육 시스템과 강사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⁴⁾. 본 시스템도 요청 시 누구에게나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귀국봉사단원을 개발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NGO나 학교의 요청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강사풀(pool)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정보 아카이브(archive)도 구축하고 있다.

KCOC는 국제사회에도 한국NGO 글로벌시민교육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경주에서 개최된 UN DPI NGO 컨퍼런스에서 KCOC는 ‘Making the SDG Target 4.7 Happen Glocally’라는 주제로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⁵⁾. 본 워크숍은 KCOC를 포함하여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아시아개발연대(ADA), 아시아태평양기초성인교육연합(ASPBAE), 글로벌시민교육 연대체인 Bridge47 Network, 세계시민의식연합(CGC) 등 국내·외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협의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각 나라별, 지역별 글로벌시민교육 상황 및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SDG 4.7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한 협력 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NGO, 연구기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SDG4.7 세부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상과 같이 KCOC는 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을 위한 공통의 인력양성, 콘텐츠 개발,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정부-학교의 중계 역할,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 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COC가 개발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개발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KOICA는 개발교육 기반 구축 지원(2009-2011), 교재연구 및 개발 지원(2013), 해외봉사단 개발교육 전문강사 양성지원(2014-현재)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면서 한국NGO의 개발교육이 안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3) KCOC홈페이지 2017.9.15. 검색

4) KCOC의 공교육용 개발교육 시스템과 강사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개발교육시스템: 신청 → 수업 → 교사와 수업내용 공유 → 평가
- 강사풀 운영에 대한 시스템: 강사모집 → 양성 → 수업설계 → 수업실시 → 보고 → 평가 → 보수교육 (출처: 신재은 (2014))

5) <https://outreach.un.org/ngorelations/conference-2016> (2017.9.20. 검색)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글로벌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선례를 볼 때 한국의 글로벌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은 필수적인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이태주, 2009; 박수연, 2014).

2. 세계시민교육과 정책 애드보커시 연계 :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세계시민교육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여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⁶⁾

본 교육은 ‘학교협력을 통한 교육,’ ‘교사협력을 통한 교육,’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협력은 전국 20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파견하거나, 세계시민 동아리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사협력은 2011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을 통해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사례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랜드 세계시민교육 체험장, 세계시민 공감살롱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세계시민교육 접근성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은 여러 차례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브랜딩하고, 교육부와 관계 기관 MOU 등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며, 교육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월드비전, 2015).

〈표 5〉 시기별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중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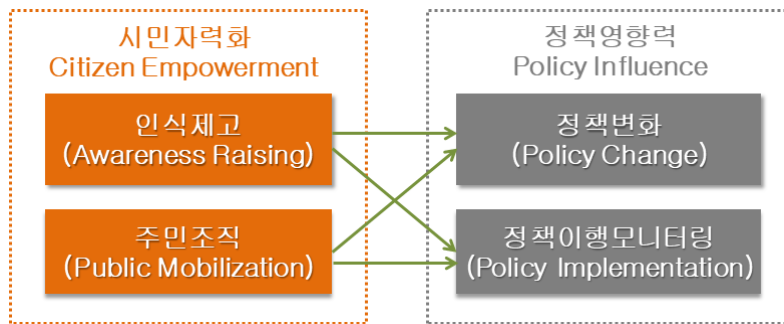
2007-2008	2010-2012	2013-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시작 • 지도박행군단 진행 • 보급용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확산 • 활동참여중심 교재개발 • 강사양성 시작 • 세계시민학교 체험관 운영 • 교원연수 시작 • 세계시민학교장 한비아 취임 • 세계시민학교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공신력 강화 • 세계시민학교 브랜딩 • 교육부 MOU • 교육기부 대상수상 • 효과성 연구 및 포럼개최 • 한국과학창의재단 MOU • 교사사례공모전 개최

6) 월드비전홈페이지: <http://www.worldvision.or.kr/> (접속일: 2017.09.15.).

출처: 월드비전 (2017)

이런 변화와 함께 월드비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 기능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접근방식이 자선의 개념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 아동인권에 대한 시민과 후원자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동시에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매커니즘이 중요해지면서, △ 학교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에 애드보커시 활동을 연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이에 월드비전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조직하여 세계시민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업을 구체화시켰다.

〈그림 1〉 월드비전 시민자력화와 정책영향력과의 관계



출처: 월드비전 (2017)

일례로 월드비전 글로벌 아동보건 캠페인 ‘Child Health Now’는 MDG 4의 세부목표 4.A인 ‘1990년과 2015년 사이 5세미만 아동사망률을 현재의 2/3로 감소시킨다(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는 지구적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는 2000년부터 10여 년간 MDGs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목표 4번의 달성 결과는 미진하였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이 서명하고, 직접 다른 시민들에게 이 이슈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실제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0만 명이상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국가의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보건 정책들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들로 연계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당시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사망자 수를

88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UN, 2016).

또 다른 사례로는 “I’m Here”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어린이들이 SDGs 의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이다.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시민 및 후원자를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진행된 본 캠페인은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세계시민교육 과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과 인증샷 행사를 진행하였고 월드비전 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갔다. 이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과정에서도 교육 강사들과 교원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설명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전달, UN총회에 참석 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동보호 이슈는 월드비전을 포함한 아동 관련 국제 NGO들의 노력으로 제 70차 UN 총회 및 정상회의에서 UN 2030 의제인 SDGs의 16.2번 목표로 최종 채택될 수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교육과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 개인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통로를 구축하였다는 점, 그리고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양한 참여형 글로벌시민교육 :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은 지구촌 이웃을 섬기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섬김의 리더(servant leader)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우고 공감하며 행동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지구촌의 다양한 개발이슈(기아, 식량, 교육, 아동노동, 기후 변화, 에너지, 도시빈민, 보건, 에이즈 등)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상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용 기아지도, 2017 한톨나눔캠페인 동영상 ‘난민과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대한 소개,’ 글로벌시민교육 웹툰 등 다수의 교육콘텐츠와 수십여 개의 영상이 개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를 통해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1991년에 시작된 한톨자선달리기는 매년 변화를 거듭하여 2008년 한톨나눔축제로 이어졌고, 2015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나눔 교육과 체험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톨나눔축제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교육 → 나눔교육 (주제: 빈곤과 교육불평등) → 한톨 희망키트제작 (개발도상국에 전달될 학용품 키트) → 나눔체험활동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별도로 마련하여 부모와 자녀가 동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시민교육의 심화프로그램으로 ‘한톨청소년봉사단’을 발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시민교육 등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중 연간 150여 명을 별도 선발하여 약 10개월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현재 5기가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내사회봉사 등을 통해 미래의 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비전특강(월 1회), 국내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실천(월 1회), 해외현장에서 봉사활동 실천(연 1회), 캠페인활동(연1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대책의 ‘한톨청소년봉사단’은 글로벌시민교육을 국내 현장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국내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local)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세계시민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다음 <표 6>의 사례는 국내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참가자들이 느낀 점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표 6〉 기아대책 ‘한톨청소년봉사단’ 활동소감 사례

비전특강	첫 번째 비전특강인 노지향 대표님의 강연은..... 매우 인상 깊었다. 대표님께서는 소년원의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기간 동안 느끼던 것들을 알려주셨다. 나는 소년원의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진 여러 편견들을 떠올렸다..... “그 무리와 어울리면서 욕도 하게 되고,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함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적지 않게 느꼈다..... 가장 먼저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국내봉사	한톨청소년봉사단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바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는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16; 2017)

이상과 같이 기아대책은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글로벌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된다. 최근 시도하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과 국내 이슈와의 접목은 글로벌시민교육이 해외의 어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내가 사는 지역의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글로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이슈에 대한 연계점을 마련해 간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전인적인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 한국YMCA 라온아띠

라온아띠(RaonAtti;아시아의 친구들)는 지구시민을 양성하며, 지구시민의식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아시아 국가에 한국 청년 30명을 5개월 간 파견하는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이다.⁷⁾ 참가자들은 라온아띠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시민이란 누구인지에 대해 배우고 지구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 라온아띠가 추구하는 청년상 및 실천강령은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 YMCA 라온아띠 청년상과 실천강령

라온아띠 청년상	라온아띠 실천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적 감수성을 가진 청년 • 아시아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 • 다름을 이해하는 열린 청년 •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 • 자신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제 활동을 만들고 참여한다.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선다. • YMCA, 협동조합 등 지역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 • 아시아 감수성을 다른 청년들과 공유한다. • 한국 속의 아시아를 찾아간다. • 주변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친구와 이웃으로 만든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을 지킨다.

출처: 한국 YMCA전국연맹 홈페이지 (www.ymcakorea.org) (접속일: 2017.09.15.).

7)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2회, 회당 30명씩 선발한다. 1개월간의 국내훈련 이수 후 팀별로 4명(남2명, 여2명)씩 아시아 7개국의 마을로 들어가 5개월간의 자원 활동을 펼친다.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지속되나 참여여부는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지구시민이 되는 첫 관문은 9일간의 전체훈련과 3주간의 팀별 지역NGO인턴십으로 구성된 국내훈련에서 시작된다. 우선 지구시민교육 및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강의와 팀별 활동을 통해 지구시민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다양성·평화·인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정의·형평성·환경 보존에 대한 노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기술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역NGO 인턴십에서는 현지 활동의 본격적인 준비기간으로 두어 참가자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에서 진행할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전체훈련에서 배웠던 내용을 국내의 여러 과제 안에서 적용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각 나라의 현장에서는 라온아띠 참가자들이 지역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활동들을 진행하며 5개월의 시간을 보낸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모라투와(Moratuwa) 현장에서는 강가의 철거 예정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교육, 환경개선, 보건 활동을 하였으며,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에서는 빈곤 지역에서의 무상급식 사업인 ‘밥퍼·빵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일공동체센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아시아 7개국⁸⁾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7개국 현장 기관들, KB국민은행 그리고 한국YMCA는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350PPM 환경캠페인’과 △ 세계빈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빈곤을 퇴치해 나가자는 ‘End Poverty 캠페인’을 캠페인 주제로 선정했다. 프로그램 모든 과정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라온아띠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지구시민의 경험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내재화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이 파주지역 다문화공부방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시아를 배우고 싶은 참가자들이 모여 아시아 연구모임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 진행된 라온아띠 프로그램은 세 차례에 걸쳐 외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통해 라온아띠가 가져온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다음 사업에 반영되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2016년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라온아띠를

8) 캠페인 대상지가 된 아시아 7개국은 다음과 같다: 동티모르,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통해 서로 다름(difference)을 이해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와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고 향후 이런 경험을 이어가고 싶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상자 1〉 2014-2016년 한국YMCA 라온아띠 프로그램 활동 평가⁹⁾

- 본인의 성장과 관련하여 라온아띠 청년상 중 ‘다름을 이해하는 청년’ 이 가장 많이 선택했다.
- 75%의 응답자가 전지구적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빈곤,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 30%의 응답자가 졸업 후 라온아띠 관련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다.
- 76%의 응답자가 귀국 후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88%의 응답자가 후속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77%의 응답자가 활동 지역을 다시 방문하겠다.

출처: 한재광 (2016), p.30-2.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해 현지기관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음 스리랑카의 사례를 보면 라온아띠 프로그램이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육과 현지 기관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상자 2〉 스리랑카 YMCA 사무총장의 라온아띠 프로그램 평가

라온아띠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아이들은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라온아띠 단원들을 받아들였고.....라온아띠는 아이들에게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되어.....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그 결과 학교 출석율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라온아띠 프로그램 덕분에 YMCA 활동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YMCA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 덕분에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라온아띠 단원에게도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팀워크를 배우게...지역 사람들과도 깊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인생의 이른 시기에 얻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들과 지역주민들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많은 라온아띠 단원들이 스리랑카에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YMCA (2014), p9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온아띠는 지구시민교육과 국제자원활동이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각 활동 요소마다 지구시민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지구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전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지구시민성을 지향하는 기관의 정체성, 오랜 지구시민교육의 경험, 기관의 자산 및 네트워크, 그리고 후원기관인 KB국민은행과의 지속적인

9) 평가 참여자 수는 총 89명(남자 43명, 여자 46명)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라온아띠의 활동 전반을 살펴보면, ‘참가자의 변화 도모’는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성과 및 영향 중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라온아띠와 아시아, 국제 현장, 현지 주민, 한국YMCA, 국내 현장, 후원기관 등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참가자의 변화가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들은 지구시민교육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5. 나눔교육을 통한 SDG 12 달성에 기여: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아름다운가게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2002년에 출범한 NGO이다.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려는 뜻이 설립 취지에 담겨 있다. 이러한 취지는 ‘그물코’와 ‘되살림’이라는 두 가지 정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물코가 씨줄과 날줄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 나눔과 순환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되살리자는 취지이다.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교육에는 이러한 기관의 취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나눔교육은 진정한 나눔의 목적과 방법을 함께 찾아 생활 속에서 나눔, 순환, 공존의 가치를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나눔교육은 소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나눔(sharing)에 대한 다양한 주제(나눔, 재사용, 빈곤, 공정무역, 자원활동 등)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나눔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동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인 착한 소비와 나눔에 대한 교육은 유아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정무역이나 나눔바자회 등 확장된 내용의 교육과 활동은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표 8〉 아름다운가게 대상별 나눔교육 프로그램

대상	과정	내용
유아	기본	•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눔을 재미있게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
	심화	• 나눔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착한 소비를 배우고 직접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기본	• 나눔 : 나눔과 공존의 가치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
	심화	• 착한소비 :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중·고등학교	기본	• 공동체 : 아름다운가게가 지향하는 그물코와 되살림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대상	과정	내용
		<p>살아감의 의미를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 나눔과 공존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활동과 접목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 • 윤리적소비 : 소비와 구매의 중요성을 깨닫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 공정무역 : 무역을 통해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역할극 활동을 통해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살림 : 헌 물건을 재활용/재사용 하는 되살림 체험 실습 • 캠페인 활동 : 교육 주제 중 택일하여 캠페인을 진행 • 나눔바자회/일일가게 : 학교 내외 진행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하여 준비 및 실행 소감 나눔 및 마무리

출처: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홈페이지 (<http://edu.beautifulstore.org>) (접속일: 2017.09.15.).

또한 이러한 나눔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기증활동, 장터활동,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학습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생용 동아리 프로그램의 내용(예)이다.

〈표 9〉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동아리 프로그램 (예)

회기	내용
1회기	• 공동체와 나눔: 아름다운 가게가 지향하는 그물코와 되살림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감의 의미를 이야기해본다. 나눔과 공존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활동과 접목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
2회기	• 지속가능한 소비 : 소비와 구매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세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의 방법에 대해 이해
3회기	• 공정무역 : 무역을 통해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역할극 활동을 통해 알아봄.
4회기	•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 :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공동목표를 토론허동을 통해 인식
5회기	• 되살림 활동 : 헌물건을 재활용/재사용하는 되살림 체험 실습 활동
6회기	• 캠페인 활동 : 교육주제중 택일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
7회기	• 바자회/일일가게 : 학교 내외 진행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하여 준비 및 실행하는 활동
8회기	• 소감나눔 및 마무리 :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함.

출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http://edu.beautifulstore.org>) (접속일: 2017.09.15.).

실례로 덕성여고는 1년간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제3세계, 공정무역, 재사용에 대해서 배운 뒤 거리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나눔과 재사용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나눔교육을 자기 학습 차원에서 벗어나 공동체 차원의 운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교육은 SDG 4.7인 글로벌시민교육 목표 중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육의 지향점이 SDG 12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실천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교육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개념을 재정의 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보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6.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 4 달성에 기여: 호이(HoE)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호이(Hope is Education, HoE)는 교사들과 함께 하는 교육 전문 NGO로, △ 해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고, △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 양성에 참여하며, △ 연대, 지지·옹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지향하는 일에 그 가치를 두며 활동하고 있다.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도 글로벌 시민성을 기르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담겨있다.

〈표 10〉 호이(HoE)의 비전 및 미션

비전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를 꿈꿉니다. •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의 <u>Global Citizenship</u>을 기릅니다. •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이룹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활동,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 학습자들이 Global challenges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움과 실천의 장을 제공합니다. •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축합니다.

출처: 호이(HoE) 홈페이지 (<http://hopeisedu.org/>) (접속일: 2017.09.15.).

호이의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활동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원연수는 국제 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세계시민교육을 공교육 내에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교원연수는 △ 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해 가야 하는 이유와 방법, △ 초·중등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및 학급 운영에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하는 방법, △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관점과 철학을 실제 학교 현장 속에 다양하게 녹여내는 과정을 공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다양한 교과에 통합하여 대상별 지도안, 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안, 학급 운영안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해보면서 공교육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본다. 이런 과정을 수료한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 학급에서 자발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해 오고 있다. 다음 사례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교사의 이야기이다.

〈상자 3〉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소감

“저는 장애학생들이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이해하고, 기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학생들과 송아리채(건과일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수업을 했습니다.....학생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호이에게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그리고 호이의 ‘물뜨러 가는 길’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미션지를 받아, 5km의 거리를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고 SDGs의 스티커를 받아 빈 곳에 붙여 전체 SDGs를 완성하는 형태였습니다....물을 들고 돌아오는 길은 역시나 너무 힘들었으나 장애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 봄으로써, 아프리카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현장에는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물 뜨러 가는 길’ 캠페인은 저에게 특수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특별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처: 호이 (2016), pp.51-2.

위 사례와 같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은 각 학교나 학생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연수의 강점이 있으며 호이는 연수 프로그램과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교사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이의 교원연수는 해외 국제개발협력 활동으로도 연계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호이의 해외 현장인 케냐와 우간다의 교사들을 위한 ‘단기집중교사연수(Short Term Intensive Course for school teachers, 이하 STI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동 교사들은 그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웠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현지연수프로그램 구성 과정에 적용해 보면서, 한국의 경험을 연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배움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 현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국내 교사는 아래와 같이 그 과정과 경험을 설명하였다.

〈상자 4〉 호이(HoE) 단기집중교사연수 한국 참가자 소감

“우리는 아촐리 문화와 공동체 안에 교육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현지 교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로 모둠활동과 토론을 통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지난 학기 SLC(School-based Learning Community)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학기 프로젝트 과제 구상하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아촐리 시각에서 풀며 고민 나누기 시간을 통해 현지 교사의 교육 가치관과 역량을 한국 교사가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출처: 호이 (2016), pp.36-7.

동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우간다 오푸코무니 초등학교(Opukomuny Primary School)교사 또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동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상자 5〉 호이(HoE) 단기집중교사연수 현지 참가자 소감

“한국 교사들을 만나는 단기집중교사연수(STIC)은 교사들의 리더쉽, 교수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고, 한국과 우간다 교사들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 확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처: 호이 (2017), p.18.

호이의 교원대상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내부자인 교사들이 직접 학교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도해보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을 습득한 교사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 집단인 해외 교사들과의 만남에서 세계시민성을 적용해본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해외 교사들의 관점에도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해당 지역 교육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결론과 시사점

지난 15년은 한국사회에 글로벌시민교육이 도입된 시기로, 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체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이슈들을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 중 NGO는 국내 글로벌시민교육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주체 중 하나이다. 그간 NGO는 시범학교, 시범학급, 동아리, 창의적 체험학습 등의 교육형태로 학교 현장에 들어갔다. NGO는 학교현장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협동학습과 같은 참여적(participatory)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분명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단체의 역량, 지향점, 담당 팀 배치여부, 직원 개인의 헌신도 등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결과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NGO계 내·외부로부터의 평가와 비판도 상당했다. 하지만 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NGO가 실시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이 이러한 배경과 한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 및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NGO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형태의 글로벌시민교육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글로벌시민교육의 플랫폼의 역할, 교육을 넘어 시민운동으로의 연계, 교육과 SDGs달성을 연결, 지역차원의 실천 등 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 사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본다.

우선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글로벌시민교육은 NGO를 포함하여 KOICA, 교육청(서울시·경기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동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교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교육프로그램이 기관별로 운영되다 보니 누가 무엇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글로벌시민교육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각종 애로사항 및 한계 또한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시민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플랫폼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구축하고, 그것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며, 국가적 과제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셋째 지난 15년간의 글로벌시민교육은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NGO 중 몇몇 대형 단체들이 기관의 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지만 교육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지방과 취약지역에 교육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마련하여 글로벌시민교육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대안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매커니즘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개발인지증진 활동에 시민사회의 글로벌 세계시민교육을 연동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육청-학교-교사-NGO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향후 개발될 자료를 모으며, 그 외 필요자료 개발, 객관적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시민교육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지역단위 기관,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교육사업의 현황』. 서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박수연. 2014.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사례의 정책적 함의.” 『국제개발협력』 2014년 제1호: 110-124.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송진호. 2014. “국내 민간의 개발교육 동향 및 제언” KCOC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4.7.24,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신재은. 2014.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포럼 발표자료 (2014.12.18., 여의도태영빌딩T아트홀).
- 아름다운가게.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 서울: 아름다운가게.
- _____. 2017. 『KCOC 개발교육 강사양성과정 발표안』. 서울: 아름다운가게.
- 이태주. 2009.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교육』.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월드비전. 2017.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소개 발표안』. 서울: 월드비전.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16. 『한톨청소년봉사단 3기 활동집 (2015-2016)』. 서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_____. 2014.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내부자료』. 서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_____. 2017. 『한톨청소년봉사단 4기 활동집 (2016-2017)』. 서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6. 『국제개발협력 입문』. 성남: 시공미디어.
- 한국YMCA. 2014. 『라운아띠 4-9기 활동보고서』. 서울: 한국YMCA.
- 한재광. 2016. 『라운아띠 프로그램 활동 평가 분석』 (미발간자료).
- 호이. 2016. 『2015연차보고서』. 서울: 호이(HoE).
- _____. 2017. 『2016연차보고서』. 서울: 호이(HoE).
- _____. 2017. 『세계시민교육』 내부자료. 서울: 호이(HoE).
- United Nations. 2016.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홈페이지: <http://www.ngokcoc.or.kr> (접속일: 2017.09.15).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홈페이지: <http://edu.beautifulstore.org> (접속일: 2017.09.15.).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store.org> (접속일: 2017.09.15.).

월드비전(World Vision) 홈페이지: <http://www.worldvision.or.kr> (접속일: 2017.09.15.).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홈페이지: <http://www.kfhi.or.kr/> (접속일: 2017.09.15.).

호이(HoE) 홈페이지: <http://hopeisedu.org> (접속일: 2017.09.15.).